

# 나랏빚, GDP 50% 넘었다



▲ 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4%를 기록해 1년 새 1%포인트 상승했다. 사진=뉴스시스

한국의 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1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3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D1)가 전년 대비 59조 4000억 원 증가한 1126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더한 것으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친 국가부채(D2)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50.4%를 기록해 1년 새 1%포인트 상승했다. 한 행정 전문가는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정부가 국회에 떠밀려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보였다. GDP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지난해(5.4%)에 이어 또다시 3%를 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중기 국가채무비율 55%를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률로 빚을 상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나랏빚이 쌓이는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채무비율 55%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성 근로자 역대 최대 ... 임금 격차는 OECD 1위

지난해 한국에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여성 근로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남녀 임금 격차가 2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임금 차별은 여전히 전했다.



▲ 세계여성의 날인 지난 3월 8일 민주노총 세계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신문'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여성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28만 2000명 증가한 997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1963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올해 1000만명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여성 비중은 45.7%까지 확대되며 남녀 '평등 고용' 수치인 50%에 바짝 다가갔다.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전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간

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31.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컸다. OECD 평균인 12.1%와는 2.6배 차이가 났다. 격차가 30% 이상 벌어진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25.4%), 일본(21.3%)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1996년부터 '남녀 임금 차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19~59세 임금근로자 15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별 임금 격차 발생 원인' (복수 응답)을 물었을 때 남성은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로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아서' (39.6%)라는 답을 가장 많이 했다. 반면 여성은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성차별 누적' (54.7%)을 주된 원인으로 봤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또다시 '여소야대'



▲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하는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0일 실시됐다.

이에 앞서 5일과 6일 실시된 사전투표, 재외·선상·거소 투표율을 더한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7.0%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66.2%를 근소하게 넘어선 수치이며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32년만에 총선 최고 투표율을 경신한 것이다.

선거 결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18석을 얻어 총 108석,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4석을 얻어 총 175석,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어 총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지역구 1석씩을 얻었다. 이는 21대 국회보다 여소야대가 심화된 결과로 현 행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그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치권에선 여전히 윤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의 기초와 방향성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적지 않지만,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차지함에 따라 국정 운영을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를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이다.

## Kyung Sook Yu, D.D.S

# 스페셜 교정치료!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3000

부터  
(무료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6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